

한라시론



민 무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여권통문(女權通文) 123주년을 맞이하여

9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라고 평가되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3주년 된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매해 7월 첫주에 치러졌던 양성평등주간을 9월 첫 주로 옮겨 여권통문의 현대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양반여성들이 '여학교 설치 통문(女學校設始通文) 여권통문'을 발표했는데 여성의 전부적 인권, 교육권, 경제권, 정치참여권을 주장했다. 당시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 전문이 실렸는데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 여권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은 평등한 교육권을 가장 중시했는데 최초의 근대적 여성운동단체인 찬양회(贊襄會)를 발기하고 다음해인 1899년 2월에 회비를 모아 30명 정원의 순성학교(順成學校)를 직접 개교, 운영했다. 이는 한국여성 스스로가 실천적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최초의 초중등수준의 민간 여학교이다. 찬양회 회원들이 무급교사로 일하고 회비, 후원금, 사재 등으로 운영했으나 재정난으로 얼마가지 못하고 폐교됐다. 그러나 당시 정 부와 사회 전반에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여성권한은 이미 높으며 양성평등은 다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은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100여 년 전

주장했던 여성의 교육권, 경제권, 정치 참여 부분 중 교육권은 가장 크게 신장된 부분이다. 교육권의 신장은 성차별 인식의 완화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족 계획 정책으로 인한 자녀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여성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경제 활동참여와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권한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권을 보여주는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권익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모든 사회보장이나 연금제도가 소득활동자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독립적인 소득없이 피부양자로 산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는 삶이 어려워짐은 빈곤율의 남녀간 격차에서 증명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중위 소득 50%이하인 남성빈곤율은 15.3%

인 반면, 여성은 20.5%로 차이가 크다. 2019년 제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7%, 여성 62.9%로 무려 14%p 가까이 차이가 있으며 임금격차는 33.6%이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금 여성의 경제력 확보는 최우선과제이다. 사회현실을 바꾸는 가장 큰 동력인 정치적 권한 수준 지표인 여성 국회의원은 19%에 불과하며 제주도 의회 여성의원은 18.6%(43명 중 8명)에 그친다. 제주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여성이장은 전체 172명중 불과 5명뿐이다(애월리, 귀덕동 3리, 대림리, 금동리, 동일2리). 제주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이런 낮은 경제권, 정치적 권한의 수준과 직결돼 있다. 123년 전 여권통문의 외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9월 한 달이 됐으면 한다.

사설

추석 물가대책, '하나마나' 지적 안받아야

올해 고공행진중인 소비자물가로 도민들의 추석 명절 쇠기에 '비상'이 걸렸다. 서민들은 크게 오른 추석 성수품으로 장보기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겨우 버티는 상인들은 명절 대목마저 접어야 할 위기감에 '한숨'만 내신다. 제주가 사회·경제적으로 전대미문의 위 정치권한 수준 지표인 여성 국회의원은 19%에 불과하며 제주도 의회 여성의원은 18.6%(43명 중 8명)에 그친다. 제주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여성이장은 전체 172명중 불과 5명뿐이다(애월리, 귀덕동 3리, 대림리, 금동리, 동일2리). 제주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이런 낮은 경제권, 정치적 권한의 수준과 직결돼 있다. 123년 전 여권통문의 외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9월 한 달이 됐으면 한다.

물면서 효과를 기대기 힘들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도·행정시 17일까지 운영할 추석 물가대책 주 내용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상황, 부정 유통행위, 전통시장 이용 권장 등 전과 다름없이 만든 탓이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는 현실에서 모두가 명절 대목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추석 성수품의 대대적인 공급물량 확대, 사재기 단속 철저, 실시간 가격 확대 등 물가 체감도를 낮출 실질 대책에 올인해야 한다. 농축수협과 전통시장상인회 등 관련기관도 추석물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 모두가 제대로 명절 대목을 맞을 때 지역경제가 살고, 관련 기관도 존립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경제 위기·고물가 행진이란 최악의 상황에도 '판박이' 물가대책은 하나마나란 지적을 받기에 딱 알맞다.

오라관광단지사업 재추진도 만만찮다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게 한 두번이 아니어서다. 지난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법적 근거 없이 자본검증을 하는 등 갖가지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자가 전면 재수립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목된다. JCC(주)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 해 7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을 국내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JCC는 당초 14%, 객실수는 21%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체 부지 면적의 63%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에코컨셉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조

만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서 내용을 재심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과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인바 이번 사업계획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사업계획이 1차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만큼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할건지, 말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온갖 구실로 발목을 잡으며 사업자를 괴롭히는 '갑질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편집국 25시

대선, 승부는 시작됐다



부 미현
정치부 기자
bu8385@halla.com

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들에 대해 두 차례 킷오프를 통해 4명까지 후보군을 줄여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원 전 지사는 만만치 않은 당내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우선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4명 후보 안에 포함돼야만 대망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원 전 지사는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국민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알아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 내 경선은 이번주 대 전·충남에서 시작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경선이 도입된 이래 제주지역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중도층, 중일 공약을 선거전략으로 삼으며 제주가 아닌 중원을 첫 경선지로 선택했다. 그동안 제주도가 경선 출발지로서 정치권의 관심을 선점해왔다는 점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는 10월 10일 확정된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은 11월 9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들의 제주 관련 공약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주목된다.

뉴스-in

“공직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필요”

권한대행 현장 소통행정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1일 서귀포시 방악과 문화도시 육성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소통행정을 실시. 구 권한대행은 이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한데 이어 이종섭 미술관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구 권한대행은 “이종섭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이 조성되면 서귀포지역에 문화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 고대로기자

“공직자 일탈행동 유감”

○...안동우 제주시장이 1일 영상 회의로 대체한 간부회의에서 최근 시 소속 공무원이 단속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 안 시장은 “공직자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일선 현장에서 목목히 일하는 제주시 전체 공직자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만큼 다시 한번 심기일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언급. 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공직 기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이수하고 감찰부서에서는 보다 세밀한 지도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 이윤형기자

“계시관 대체 소통창구 운영”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묻고 답하기 계시관’인 자유계시관의 복원을 촉구하는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의 계시관 폐지 이유 등에 대한 공개 질의에도 교육청이 “대체·보완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답변. 도교육청은 1일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기존 자유계시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통 기능을 강화한 ‘제주교육생각함’과 ‘제주교육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전해준 의견을 기반으로 자유계시관과 묻고 답하기 계시관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점언. 오은지기자

분묘개장광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가수
2. 개장 사유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4. 개장방법
5. 안치장소
6. 신고 및 문의처
7. 신고시 구비서류
8. 기타사항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아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환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사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수농가 보급품종
가정원예(조경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과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010-6500-232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4) 강정동 해안도로 점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6)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 호근동 범섬 부, 최고 전원주택